

보성,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도전

별교갯벌·득량만·보성강·주암호 등 생태축 연결
7월 31일까지 최종 신청서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

보성군이 별교갯벌과 득량만 해역, 보성강, 주암호를 하나의 생태축으로 연결해 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6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에 도전한다.

27일 보성군에 따르면 '생물권보전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생태계를 가진 지역 중 지역 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곳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유네스코 3대 자연보전제도 중 하나로, 보존과 발전, 자원을 조화롭게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군은 군 전역을 별교갯벌, 득량만 해역, 보성강 및 주암호 등 총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생태환경, 역사·문화, 지역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핵심구역은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해양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야생동물 보호구역 등 법적 보호를 받는 지역으로 지정했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을 둘러싼 △주암호 수변구역 △친환경 농업 생산 지역(국가중요농업유산인 보성차밭 핵심지역) △내륙부 환경보전해역 등으로 설정해 핵심 생태계를 보호하고, 친환경적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협력구역은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외의

지역으로 지역 사회와 기업, 주민이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군은 등재를 위해 철저하고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해 4월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회의에서 예비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다양한 생태·문화 유산 기반 위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같은해 9월 국문본 신청서를 제출하고, 12월에는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현지 실사 및 보안을 완료했다.

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를 위한 국문·영문 최종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철우 군수는 "별교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이어 보성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청정 보성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보성만 갯벌



문덕교



득량만

여수 정작 신호탄 '청년마을 가온' 확대 운영

2~3호점 개소 준비...청년 활동 기반 제공

여수시가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신기동 일대에 조성한 '청년마을 가온'이 올해 더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가온'은 청년의 창작과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청년문화 예술인의 실험과 교류 공간으로 가능성을 입증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도권을 거주하던 한 청년문화예술인이 프로그램 참여 후

여수로 전입, 창작활동과 지역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정착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올해는 가온 1호점에 이어 2~3호점 개소를 준비 중으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활동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문화의 다양한 실험과 창작이 가능한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3주 살이 프로그램'을 통한 체류형 문화창작 활동, 지역 청년과 타지 청년이 함께하는 '가온 리트릿(Retreat) 캠프'

예술작품 전시와 공연 중심의 'The 가온 프로젝트',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커피·베이킹, 인공지능(AI) 교육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된다.

여수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에 수도권과 지역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무대로 마련된다.

올해 예정된 주요 행사로는 거북선축제, 충무지구 청년거리 문화한마당, 낭만·청춘버스킹, 흥국사가 문화관광형 행사 등으로, 청년 예술인들이 버스킹과 전시, 팝업스토어 등으로 참여해 지역 주민 및 관광객과 소통할 계획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이상익 함평군수가 지난 25일 엑스포공원 나비곤충생태관에서 열린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나비, 황금박쥐를 만나다’

함평나비대축제 내달 6일까지 대장정 돌입

함평군이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가 성대한 막을 올리며 5월 6일까지 대장정에 돌입했다.

27일 함평군에 따르면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가 축제 첫날인 지난 25일 오전 엑스포공원 나비곤충생태관에서 개장 기념 나비날리기 행사로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

문화체육관광부 명예문화축제로 지정된 제27회 나비대축제는 '나비, 황금박쥐를 만나다'를 주제로 5월 6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나비대축제에서는 호랑나비, 배추흰나비 등 17종 약 20만마리의 살아

있는 나비와 메리골드 등 30종 50만본의 봄꽃이 어우러진 장관을 선보이며 관광객을 맞이한다.

특히 올해는 최근 금강 상승으로 주목을 받는 함평의 대표 관광 콘텐츠인 '황금박쥐' 캐릭터 '황박이'가 함께 관광객을 맞이하며 축제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이상익 군수는 "함평나비대축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며 "전국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

광양 '백운산 치유의 숲', 힐링 명소로 각광

연 1만5000명 이용...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호응

광양시는 '백운산 치유의 숲'이 연간 1만 5000여명이 이용하는 대표 산림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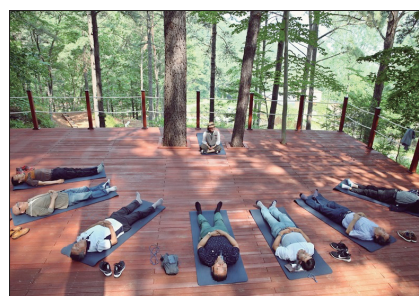
"백운산 치유의 숲"은 광양 백운산의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치유의 숲 센터, 치유숲길, 치유정원, 치유마당, 풍욕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용객의 건강 상태와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대상 '한 걸음 두걸음', 직장인 대상 '여우야 놀자', 장애인·어르신 대상 '씨목씨목', 가족 대상 '다복다복' 등이 있으며, 갯년기 여성, 암 경험자,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이다.

각 프로그램은 이완체조, 맨발 걷기, 숲속 요가, 족욕, 해먹 명상, 아로마테라피 등 산림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으로 구



성태, 이용객의 신체 활력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운영 시간은 하루 2회(오전 10시~12시, 오후 2시 30분~4시 30분)이며, 동절기에는 실내 중심 프로그램으로 조정된다.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LOCAL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화순, 국가지점번호판 점검

내달까지 정비 보수 완료

화순군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는 5월까지 국가지점번호판의 망실·훼손·표기 오류 등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경찰·소방·산림청 등 기관별로 다른 위치 체계를 통일해서 도입한 위치표시 체계이며, 전 국토를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해 문자 2자리와 숫자 8자리로 조합해 지점마다 부여한 위치 표시 번호다.

국가지점번호판의 관리·정비는 시민 안전과 직결돼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지점번호판은 등산로 및 해안가, 공원 등 비주거지역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안내와 인명구조 등을 위해 이용되며, 구조·구급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소 정보시설물이다.

현재 군에는 등산로, 저수지 등 총 688개소에 국가 지점번호판이 설치돼 있으며, 군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조사용 단말기를 활용해 표기 오류, 훼손, 망실, 설치 위치 적합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오는 5월까지 정비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

순천에코칼리지 실험과정

시, 내달 6일까지 15명 모집

순천시는 생태문명 전환을 위한 대안고등교육기관인 '순천에코칼리지 실험과정'에 참여할 학생을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2026년 모집을 앞두고 있는 순천에코칼리지는 생명 가치가 중심이 되는 생태문명으로 전환을 위해 민관협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실험과정을 통해 생태문명 전환을 주도할 일꾼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모집정원은 15명이며 생태문명 전환과 실천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국내외 청년 대상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순례, 워크숍, 강의,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과 함께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순천에코칼리지는 인간과 비인간이 공존하고 지역에 비탕을 둔 생태문명도시를 만들어가는 대안고등교육 플랫폼이자 삶과 실천 중심의 새로운 시도"라며 "이런 실험과정의 경험을 내년 과정에 촘촘하게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식 기자 2556pk@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